

가성비+가심비=크뤼 브루주아



안상미 기자
Why, wine

<63> 크뤼 브루주아 2020

미국이나 칠레 등 신세계 와인의 질이 높아졌다지만 그래도 와인을 향한 애정의 시작은 역시 프랑스 와인이다. 다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자주 마시기엔 비싼 가격과 뭘 골라할지 모르는 난해함이다.

와인애호가라면 선망의 대상인 그랑크뤼(Grands Crus) 등급의 와인. 1등급이 그 유명한 샤토 라피트로칠드 등 다섯 곳이며, 2등급 14곳, 3등급 14곳, 4등급 10곳, 5등급 18곳이다. 1등급은 가격이 100만원 안팎이고, 다른 등급도 10만원 이하라면 싸다고 평가할 정도지만 막상 마셔보면 기대 이하인 와인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등급이 정해질 1855년 당시에서 몇 곳을 빼고는 160년이 넘게 재평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그랑크뤼 와인이라면 가심비는 채웠지만 가성비비는 광인 셈이다.

그럼 눈을 낮춰 정부가 품질을 관리하는 AOC 등급을 보자. 원산지와 포도품종, 알콜함량 최소치, 포도재배 방식까지 까다롭게 정해놓아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가격도 부담없는 선이라 시중에서 만나기 쉽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AOC 조건을 갖추고, 종류만도 무려 500종에 달한다. 가성비는 만족했지만 어떤 샤토의 와인을 고르는지에 따라 품질 격차가 너무 크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메독의 크뤼 브루주아 등급이다. 원래 크뤼 브루주아 등급은 192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랑크뤼 등급이 재평가 없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크뤼 브루주아 등급은 심사평가를 거



지역별 크뤼 브루주아 등급 수.



3가지 크뤼 브루주아 등급 표시 및 해당 샤토 수.

/메독 크뤼 브루주아 연합

쳐 조정이 이뤄진다. 등급 유지를 위해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일부 그랑크뤼 와인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가격은 그랑크뤼보다 현저히 낮다.

메독 크뤼 브루주아 연합이 지난달 20일 크뤼 브루주아 2020 리스트를 내놨다. 새로운 분류를 와인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 해 '와린이(와인+어린이)'도 알기 쉽게 했고, 각각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메독 크뤼 브루주아 연합은 크뤼 브루주아 등급을 3개로 다시 나눴다. 먼저 크뤼 브루주아 엑셉시오넬(Cru Bourgeois Exceptionnel)이다. 앞으로 2018, 2019, 2020, 2021, 2022 빈티지의 프랑스 메독 와인에 크뤼 브루주아 엑셉시오넬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크뤼

브루주아 와인 중에서도 블라인드 테이스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4개 와인 중 하나라고 여기면 된다.

그 아래가 크뤼 브루주아 쉬페리외르(Cru Bourgeois Supérieur)다. 모두 56개다. 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포도도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하는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곳들이다. 마지막이 크뤼 브루주아다. 179개 샤토다.

올리비에 퀴블리에(Olivier Cuvelier) 메독 크뤼 브루주아 연합 회장은 "새로운 분류로 거래는 더 잘되고, 와인 메이킹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단계로 나뉜 크뤼 브루주아 와인들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mahn1@metroseoul.co.kr

軍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국군병원, 음압병실 등 조성

805명 투입 국군대구병원 공사 병상 98개→303개로... 치료 집중 혈액수급 위해 '헌혈' 활동 동참

국군은 '코로나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달 23일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의 내부공사를 마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군대구병원의 내부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고, 805명의 공사인력이 투입됐다.

이들 인력들은 군인 525명, 민간 시공업체 280명으로,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117공병단 장병들과 대구시청 과견인력, 민간시설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노력으로 병상은 98개에서 303개로 늘었다. 121개 음압기가 각 병실 여건에 맞게 설치돼 병실 전체가 음압병실로 변경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전국 군병원의 지원 가능한 의료인력 130명이 국군대구병원으로 투입됐고, 3일 간호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한 간호장교 75명은 임관사령장의 임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군

대구병원으로 투입됐다. 국군대구병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대구시 확진환자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단장 이현민 대령은 "전국 각지에서 의료지원 중인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은 전시에 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군대구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혈액수급을 위해 국군장병들은 헌혈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헌혈운동을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1함대 장병은 혈액 수급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던 지난달 6일 헌혈운동에 참여해 혈액 11만ml를 모았다. 해병대 2사단은 헌혈 릴레이를 펼쳐 지난 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장병 130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장병 9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부족 상황에 힘을 보탤다. 육군은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공공보건 안정화를 위해 본부 차원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육군 7군단 소속 제독차가 지난 2일 대구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50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네파 '스타일링 완성' 여성 방풍재킷 2종

날씨가 꽤 춥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려움이 많아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울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일찌감치 봄 준비에 나섰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세련되고 재미난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을 완성해 주는 여성전용 방풍재킷(사진) 2종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액티브하고 스포티한 일반적인 방풍재킷과는 달리 출근할 때부터 가벼운 산책과 운동, 친구들과의 약속은 물론 야외로 놀러 갈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지만 클래식하고 스타일리시한 방풍재킷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엘린 코트는 트렌치코트 스타일로 봄철 데일리 아우터로 제격이다. 여성들이 트렌치코트를 고를 때 선호하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후드가 탈부착할 수 있고



록 디자인되어 후드가 없이 클래식하고 세련된 트렌치코트로, 후드를 부착해 좀 더 발랄하고 캐주얼한 스타일링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패션 브랜드의 트렌치코트보다 섬세한 배려를 통해 등판 플랩 안에 메쉬 안감을 적용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 커프스 부위에 스냅 디테일을 적용해 실용성을 강화하는 등 아웃도어 브랜드의 특징적인 기술력을 적용해 만족도를 높였다. /조효정기자 princess@

뚜레쥬르-나뚜루 아이스크림 케이크 출시

뚜레쥬르가 나뚜루와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하고 케이크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뚜레쥬르는 '얼음동산 친구들'을 콘셉트로 한 케이크 2종을 출시하고 케이크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개발 초기부터 나뚜루와 협업을 통해 야심차게 출시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첫 제품이다. '얼음동산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이번 제품은 '볼빨간 북극곰'과 '으쌔으쌔 바다코끼리' 2종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극지방 멸종 동물 캐릭터를 적용했다.

/김민지 기자 kmj@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266명 소위 임관

코로나19에 친지 초청 없이 진행

'코로나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가족·친지의 초청없이 '육군사관학교(육사) 제76기 졸업·임관식'이 거행됐지만, 266명의 어깨위는 소위계급장으로 빛이났다.

이날 육사 화랑대 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임관식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76기 육사 생도들은 행사를 통해, 학생인 생도에서 장교인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신입 소위들은 4년 간의 혹독한 군사훈련 및 훈육, 전공 학업을 모두 이수하고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에 따라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유재우 소위(24)는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광복군 창설 80주년,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

며 임관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의 영에는 나호선소위(여·22)가, 국무총리상은 전해광 소위(22), 국방부장관상은 김주한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장상은 김태은 소위(여·22)가, 연합사령관상은 홍양표 소위(24),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상경 소위(22), 학교장상은 강혜미 소위(24)가 수상했다.

임관자 중에서는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을 대를 이어 걸어가는 신입 소위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윤혁 소위(23)는 경남 창원원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어 건국훈장 애족장(건국훈장의 다섯째 등급)을 추서 받은 고이부근 선생의 외증손자다. 외조부도 한국전쟁(6.25) 참전용사다, 최서영 소위(여·24)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와 육사 출신인 아버지 최봉석(49)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이어간다. /문형철 기자